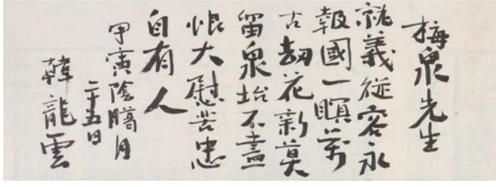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친필 황현 추모시 공개

서울 서대문형무소 '100년 전 그 날' 특별전



“의리로서 조용히 나라의 은혜를 영원히 갚으시니/ 한 번 죽음은 역사의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네/ 이승의 끝까지 않은 한 저승에는 남기지 마소서/ 괴로웠던 충성 크게 위로하는 사람 절로 되었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은 1915년 2월 8일(음력 1914년 12월 25일) 국권이 일제에 넘어간 직후 큰 슬픔에 잠겨 ‘절명시(絶命詩)’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해 황현(1855~1910)을 추모하는 시를 써서 황현 유족에게 보냈다.

“매천선생(梅泉先生)이란 추모시는 순천에 거주하는 황현 후손이 100년 가까이 간직해 온 자료인 ‘사해형제(四海兄弟)’에 실렸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용운의 친필 황현 추모시가 일제강점기 독립과 자유를 갈망한 수많은 애국지사가 간했던 서대문형무소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문화재청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10·12옥사에서 1910년 경술국치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까지 약 40년 동안의 역사적 상황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 날’을 19일부터 연다.

오는 4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문화재청이 추진한 항일독립문화재 발굴과 등록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시 공간은 도입부를 시작으로 3부로 나뉘며, 곳곳에 최근 문화재로 등록된 유물을 배치했다. /연합뉴스

시 쓰는 소방관 ... “詩는 마음의 불 끄는 소방수”

두번째 시집 발간 광산소방서 하남 119안전센터 고경자 소방관

남편·형부·제부 등 소방관 가족 재직중 문예창작 공부하며 입문 현장에서 체화된 감성 시로 전달 “시 통해 세상에 애정 갖게돼”

“119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물론 소방관은 현장에서 직접 출동해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만, 시인은 마음의 위로나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안을 준다는 차이점이 있지 않아요.”

소방관으로 활동하면서 시를 쓰는 일명 ‘소방관 시인’이 있다. 광주 출신 고경자(49) 시인.

고 시인은 “아파서 혼자 병원에 갈 수 없거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할 때 119가 필요한 것처럼 시를 통해 아픈 마음을 위로받기도 한다”며 소방관과 시인의 유사성을 이야기했다.

광주대 문예창작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1년 시전문지 ‘시와 사람’으로 등단한 그녀에게 소방관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시를 쓰는’ 직업이기도 했다. 고경자 시인이 시산맥 제19차 감성기획시전 공모 당선시집으로 두

번째 작품집 ‘고독한 뒷걸음’을 발간했다.

현재 그녀는 광주 광산소방서 하남119안전센터 소방관(지방소방위)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방관으로 재직하며 시를 쓰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만큼 창작의 열망 또한 강렬한 듯 했다. 2015년에 출간한 1집보다 완성도를 높이려다 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시일이 걸렸다. 그녀는 “현대인들은 모두 바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뒷걸음치는데 익숙해져 있다”면서 “그럼에도 상실을 통해 미래의 전망을 노래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가족은 소방관 가족이라는 사실이다. “형부가 소방서에 제일 먼저 근무를 시작했어요. 뒤이어 간호과를 나온 저에게 구급대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알려줘 제가 입문하게 됐죠. 이후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 부부소방관이 됐어요. 그러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성실한 직원을 여동생에게 소개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고 시인은 어떻게 문학의 길로 들어섰을까. “따로 문정 시절이 없었고 초등학교 때 문예반 활동을 했던 게 전부였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다 2005년 광주대 문예창작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시를 썼다. 서툰데 많이

부족했는데 교수님의 칭찬과 격려로 포기하지 않았다. 대부분 재학 중에 등단을 하는데 그녀는 졸업 후까지 혼자 습작을 했다고 한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골든타임’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단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시간이 날카로운 창으로 심장을 찌른다/ 가지는 꺾이고/ 붉은 꽃잎은 지고 없다” 직업의 특성상 슬개 겪었을 ‘골든타임’은 시인의 감성을 아프게 자극했던 모양이다. 작품집에는 현장과 일상 등에서 체화된 감성이 정갈한 언어로 형상화돼 있다.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언젠가 호흡관으로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는데 심정지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한 결과 다행히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고 소방관은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하면서 작품 창작도 할 예정이다. 그녀에게 시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주기 때문이다.

“저는 시를 통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이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것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인이 된 것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산단공단,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간담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형만)는 최근 광주전남본부 회의실에서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동강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 발표회’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창업지원단(단장 박경우)이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최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동강대 제공>

“법을 약자에 더 다가가겠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 취임

임선숙(52·사법연수원 28기) 제55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임 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회원간 친목과 법률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국적으로 여성이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돼 임기를 시작한 것은 임 회장이 처음으로, 임기는 2년이다.

전남대학교 출신 첫 여성 사법고시 합격자이기도 한 임 회장은 이번 회장 취임으로, 첫 여

성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지부장 등 ‘여성 최초’ 타이틀을 3개나 보유하게 됐다.

임 회장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여성단체가 호주제 폐지,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 활동을 할 때 동료 변호사들과 힘을 보태고 성폭력 및 아동피해 사건을 맡은 데 앞장서는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이어왔다.

그는 또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5·18 기념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인화학교 피



해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여성 변호사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임 회장은 “오는 5월부터는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활동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BTS’ 제이홉, 모교 광주 국제고에 1억 장학금

고액기부 ‘그린노블클럽’ 가입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제이홉이 지난 18일 생일을 맞아 모교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제이홉은 모교인 광주 국제고등학교의 저소득가정 후배를 위해 써달라며 재단 광주지역본부에 성금을 기탁했다.

재단은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한 뒤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이홉은 지난해 12월 20일에도 재단에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라고 말했다. 모두 2억5000만원을 쾌척한 제이홉은 재단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146번째로 가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의 참상 화순에 알리며 시위 주도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 고 김정곤씨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김정곤씨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계엄군의 광주 학살 장면을 목격하고 전남 화순으로 돌아와 주민들에게 참상을 알린 뒤 화순 지역 시위를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5월 21일 총기를 습득하기 위해 화순을 찾은 시위대와 함께 광주로 가 항쟁에 참여했다.

그는 진압 작전이 종료된 후 연행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당한 모진 고문과 구타 후유증으로 1988년 세상을 떠났다.

5·18민주묘지 관리소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을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매달 5·18민주유공자를 선정해 공적 사항을 알리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3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서봉태(전 광주일보 부장)·김순단씨 차녀 혜영양, 김정남씨 장남 조희중(씨애타 부장)군=23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 062-369-5200.

▲김원형(광주 세브란스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최정운씨 장남 재현군, 강문기(서광경영연구소 대표이사)·오화순(금강송조경 대표이사)씨 차녀 민지양=23일 낮 12시 서구 광천동 웨딩그루 워더스 광주 1층 메리엘홀.

▲박근실(전 광주시 건설본부 관리과장)·김봉순씨 차남 종성군, 이광희·김복식씨 막내 정화양=23일 오후 2시 2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2층 열두체 010-4516-8817.

▲이한섭·배은숙씨 삼남 현제군, 심인식(곡성군의회)·최정주씨 장녀 정인양=23일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도전동 드래머 웨딩홀 4층 라비엔홀.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원례회(회장 이보희)=22일(금) 오전 11시 지원 회의실 062-225-5636.

알림

▲(사)한국 숲사랑 총연합회광양회 새해 인사 및 사업 보고회(중앙총재 이승암)=21일(목)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독립로 366번길 동림빌딩 2층 한국 숲사랑 총연합회광양회 사무실 062-521-2332.

▲남부대 동수지리 무료공개강좌=23일(토) 오후 1시 30분 남부대 산학관 3층 세미나실, 명당·전원주택·수맥·영상 강의, 문의 010-8000-3190.

▲대한웰다임협회 광주지부 웰다임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수강생 모집=3월12일까지 접수(3월16일 개강)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총 30시간 광주 동구 KT 빌딩 6층(전남여고 옆) 062-511-0030.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를 위해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모집

▲광주불교문화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3월31일까지 모집(3월12일 개강), 대학(기초교리):매주 화 오후 2시~7시, 대학원(경전공부):매주 수 오후 2시~7시, (사)광주불교교육원 사무국 062-228-9098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

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연속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생)=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고재석씨 별세, 영한(모아치과)-오승·유경·경덕·서영씨 부친상, 김남희씨 시부상, 김도열·류영식씨 병부상, 박현희씨 남편상, 발인 20일(수) 낮 12시 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정순씨 별세, 심형국·형석·민경씨 모친상, 발인 20일(수) 낮 12시 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금남씨 별세, 진홍·선자·진희·은정·지연씨 부친상, 정혜경씨 시부상, 이상·피터씨 병부상, 발인 21일(목) 오전 9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신관 3층 특301호 故 김학현 님(여/69세) 子/子婦: 정훈택/전현미, 승택/차수경 女/婿: 정효진 ◇입관: 2/19 15:00 ◇발인: 2/20 07:00 ◇장지: 김학현회 ◇연락처: 250-4471	신관 4층 VIP장공 故 노금순 님(여/89세) 子/子婦: 이명석/서명진, 홍식/김지영 女/婿: 이명하/최환영, 경희 ◇입관: 2/19 13:00 ◇발인: 2/20 09:00 ◇장지: 영락공원회 ◇연락처: 250-4413
분관 3층 특12호 故 장귀순 님(여/81세) 子/子婦: 정철선/고영미, 철인/노영순 女/婿: 정연옥/나태식, 현아/박주철 夫婿: 정영수 ◇입관: 2/19 11:00 ◇발인: 2/20 08:00 ◇장지: 영락공원회 ◇연락처: 250-4412	신관 3층 특302호 故 박금례 님(여/95세) 子/子婦: 정희원/김정순, 부원/김공민, 수원/이순자 女/婿: 정복례/남영식 ◇입관: 2/20 10:00 ◇발인: 2/21 08:30 ◇장지: 담양창평면(매) ◇연락처: 250-4472
신관 2층 VIP매공 故 오원균 님(남/67세) 子: 오승준 女: 오정화 未亡人: 박인자 ◇입관: 2/19 13:00 ◇발인: 2/21 11:00 ◇장지: 광신구덕림동선영회 ◇연락처: 250-4470	신관 4층 특402호 故 임광이 님(여/78세) 子/子婦: /이부경, 전철규/박이나, 흥규 未亡人: 박인자 ◇입관: 2/20 11:00 ◇발인: 2/21 08:00 ◇장지: 영락공원회 ◇연락처: 250-4474
분관 2층 특7호 故 한규순 님(여/84세) 子/子婦: 오동수/이혜정, 동진/유옥연, 동민, 동하/이미자 女/婿: 오정숙/조형식, 정자/신상렬, 정미/양재영 ◇입관: 2/20 15:00 ◇발인: 2/21 08:00 ◇장지: 순창북동면선영회 ◇연락처: 250-4407	분관 3층 특10호 故 박길남 님(여/82세) 子/子婦: 송승희/이재희 女/婿: 송옥신/이용식, 양희, 상희/김선익, 정희/이정기, 지희/이석규, 신희/정영삼 ◇입관: 2/20 10:00 ◇발인: 2/21 07:00 ◇장지: 보성북동면선영회 ◇연락처: 250-4410
분관 지하1층 5호 한영자 님(여/71세) 子/子婦: 김동근, 종근/강정희, 공근 ◇입관: 2/19 10:00 ◇발인: 2/20 08:00 ◇장지: 김학현회 ◇연락처: 250-4405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 영 관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